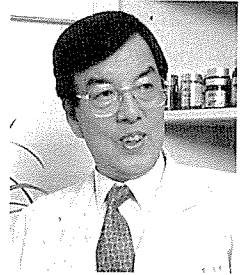


두드러기, 그 유전의 원죄



국 홍 일
(피부과 전문의)

우리가 가장 흔하게 앓는 피부병은 어떤 것일까. 이 물음에 대해 피부의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대뜸 '두드러기'라고 말한다. 그만큼 두드러기는 인간이 한평생동안 한번쯤 앓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 피부질환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의 15~20%나 될 정도로 많은 질환이다.

피부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회백색 또는 선홍색의 팽진(Wheel, 넓은 반점)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곧 "무엇을 잘못 먹었나?"하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.

물론 페니실린이나 코테인, 아스피린 등 약물이나 조개, 생선류, 초콜릿, 딸기, 치즈 등 식품의 어떤 물질이 항원이 되어 비반세포 외부에 있는 피부감작항체와 항원항체반응을 일으켜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. 그러나 두드러기는 이들 음식물 외에도 열, 한랭, 타박, 햇빛, 스트레스 등 알레르기와 관계되지 않은 메커니즘으로도 발생한다.

두드러기는 항원을 알아내면 치료가 쉽고 예방도 가능하지만 80%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외부물질에 가볍게 스치거나 긁혀 생기는 피부묘기증이 8.5%를 차지한다.

또한 기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는데 급성은 아주 단기간에 극렬하게

나타났다 없어지는 것으로 어느 연령층에나 나타나는데 비해 만성두드러기는 30대와 40대, 그 중에서도 여자에 많고 고령자나 어린이에게는 발생률이 낮다.

두드러기의 원인인 먼지, 꽃가루 등은 숨을 쉬는 한 피할 수 없으나 나방이나 파리, 모기 등도 원인이 되므로 환경청결도 두드러기 예방에 한 몫을 한다.

두드러기는 맨 처음 나타나는 국소부위에 가벼운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심해지다 꼭꼭 찌르는 듯한 압박감이 동반되며 콩알만한 것에서부터 손바닥 정도의 선명한 윤곽을 지닌 팽진이 나타난다.

이 팽진은 점점 가장자리로 확대되면서 주위의 다른 팽진과 결합, 지도모양의 불규칙한 모양을 형성하는데 12~24시간 지속되다 후유증이 대부분 소멸하며 같은 장소에 재발하는 일은 없고 단계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.

의복이나 멜빵, 벨트를 맨 부위 등 압박부위에 맨 먼저 팽진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입술이나 눈꺼풀, 눈 주위에는 형태없이 단순히 붓기만 하는데 점막에 침범하면 콧물이 나타나고 목쉰 소리도 나타나며 주의를 요한다.

두드러기는 비전문인이 봐도 금방 알 수 있으나 환자의 기왕력을 자세히 알아

야 원인을 알 수 있고 변화된 식습관·계절적·지역별 변화도 염두에 두고 치료해야 한다.

만성두드러기는 흔히 경미한 증상을 보이나 치료결과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원인은 찾기 힘들어 6개월 혹은 수년간 증상이 지속될 수도 있다. 첫 발생 또는 급성일 때는 흔히 항히스타민제가 선택되는데 두드러기의 종류와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적용량을 조절해야 한다.

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목쉰 소리가 날 때는 확장된 혈관을 수축시켜 후두의 부종을 가라앉혀야 하며 히스타민제는 진정작용으로 몸이 가라앉은 듯한 느낌으로 불편을 느낄 수 있으니 전문의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.

부신피질호르몬제는 급성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거나 만성환자에서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으므로 오래 사용할 수 없고 그 효과도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. 알레르기성은 가족력이 있으므로 가리는 음식이나 기계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오래 고생한 만성환자는 최소한 혈액과 소변검사, 가슴사진 한장은 찍어볼 필요가 있다.

이 여름 두드러기가 생기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. 예방수칙을 지켜 편안한 여름을 보내도록 노력하자. ⑤7